

치솟는 먹거리 가격·수급 관리 ‘비상’

역대급 폭우·폭염에 농축산 물가 대폭 상승...수박·육계·달걀 등 정부, 이상기후·AI 급습 등 영향으로 수급 불안 농축산 관리 강화

제철 과일, 채소, 육계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 먹거리 물가가 급상승하면서 정부의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등이 상기후가 주 원인으로, 정부는 일단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수급 관리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달에도 무더위와 비가 반복되고 농축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가 발표한 ‘농업관측정보 8월호’에 따르면 지난 달 잠외, 수박 등 제철 과일을 비롯한 농축산 먹거리 물가가 대폭 상승했다.

지난달 수박(상품)의 도매가격은 가락시장에서 1kg 기준 3278원으로 전년 동월(2255원) 대비 45.4% 폭등했다. 이는 지난달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된 데다 북송아 등 대체 품목의 가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박은 이달에도 1kg 당 3100원 내외로 전년 동월(3060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

다. KREI는 수박 출하량이 0.7%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고온과 대체 품목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박 소비량 증가 등이 수박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철을 맞은 참외(상품·10kg) 도매가격 역시 지난 달 기준 2만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 비쌌다. 참외는 이번 달에도 고온으로 인한 생육부진 및 병충해 등으로 출하량이 7.2% 감소하고, 도매 가격은 5kg 당 4만 4000원으로 6.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육계와 달걀 등 축산물 가격 상승폭도 컸다. 지난달 육계 산지가격은 1kg 당 1954원으로 전년(1563원)과 평년(1743원)에 견줘 각각 25.0%, 12.1% 높았다. 이는 지난달 잇따른 폭염으로 인한 육계 폐사 및 복날로 인한 수요 급증 때문으로 분석된다.

KREI는 육계 산지가격이 이번 달에도 전년(1739원)보다 3.5% 높은 1800원 내외를 기록하고, 기후 여건으로 생산성이 저하될 경우 가격 상

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육계 가격은 매년 7월께 복 성수기를 맞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올해는 4월(2265원)과 5월(2403원)에 이미 전년보다 21.8~56.8%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4월에 1860원으로 육계 가격이 가장 비쌌다.

올해 육계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것은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되면서 공급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계란은 올해 초부터 가격이 지속 상승해 지난 2021년 7월 15일(7546원)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계란(특란·30구) 소비기는 지난 9일 기준 전국 평균 7387원을 기록했으며,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수급 불안으로 농축산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수급 관리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우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지역별 현장 점검도 강화했다. 더불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별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약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남미서도 ‘K-푸드’ 열풍
‘K-푸드 유니버시티 브라질’ 팝업 스토어에서 고객들이 K-푸드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7월 5일부터 8월 1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 한국문화원 전시관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남미시장으로의 수출 판로 확대를 목표로 K-푸드 홍보 활동을 펼쳤다.

〈aT 제공〉

건보료 혜택 못받는 농민 없도록...권익위, 지원제도 홍보·혜택 강화

최대 28% 감면·소급 혜택 확대

정부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농민들이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한 권고를 받아들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10일 밝혔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촌 또는 준농

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감면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년 이상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농민들이 각 거주지역의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농민들이 일부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체 농업경영체 등록자 182만 8000명 가운데 9만명 정도만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

지 않았거나,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민까지 포함하면 수혜자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건보공단에 최신 통계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에 농민들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신청주의 폐지 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농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청기간보다 늦게 신청할 경우 5개월만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하던 것을 1개월 더 늘려 6개월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오이 대체 언제 해야 하나요?

과채류 등 수확시기 조절 어려워...개화·기상 상황 고려를

“오이 농사를 짓는데 아침에 머리에 노란 꽃을 단 3cm 새끼손가락만 한 오이가 다음 날 보니 훌쩍 자라 아이 팔뚝만큼 됐다”라는 등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랑스러운 일을 늘어놓는 이른바 ‘썰’을 한 두개 정도는 갖고 있을 것이다. 텃밭 농사를 하는 도시 농부가 10~20cm 수확하기 어중간한 가지 몇 개를 그냥 뒀는데 사흘 후 주말에 가보니 썰서 못 먹게 됐다는 썰도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런 썰들은 사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다. 썰이라 과장된 면이 있지만, 근거 없는 편한 소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이는 빠른 성장 속도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한 환경에서는 짧은 기간 내 수확이 가능한 작물이다. 집 화분에서도 썰어 심은 지 4~5일 만에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며, 넝쿨이 자라기 시작한다. 그리고 40~50일 정도가 지나면 수확할 수 있다. 수확시기는 품종과 재배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개화 8~10일 후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오이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오이의 크기와 색상을 봐야 하는 데 오이가 적당히 길어지고 색이 짙은 초록색을 띠면 수확할 준비가 된 것이다. 너무 오래 두면 오이가 과숙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가지 역시 성장이 왕성하기로 소문난 작물이다. 모종을 심고 60일이면 완전히 자랐다고 할 수 있다. 꽃이 핀 후 대략 20~30일 후면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가지는 어릴 때 수확하는 것이 맛있는데 수확이 늦어지면 씨가 생기고 딱딱해져 먹기가 수월하지 않다. 가지를 팔 때 뜨거운 한낮에 하면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전에 일찍 수확하는 것이 좋다. 반면 수확 후 저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여름이 제철인 작물은 상품성과 함께 수확시기를 잘 잡는 것이 관건이다. 오이나 가지 수확처럼 까딱하다 수확 시기를 놓치면 먹을 수도 팔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부딪쳐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 기온상승이나 장마 등 기상 변화로 주요 노지채소와 시설채소의 생육과 공급(가격)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 신경을 써야 한다. 농정당국이 여름이면 주요 채소류에 대해 수급 관리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타 과채류보다 노화 속도가 빠르고 환경 조건에 민감하면서도 적응력이 약한 오이는 비교적 시원한 온도인 22~28℃에서 잘 자라며, 수확이 계속되는 특성상 일조가 부족하면 과실 생육이 늦어지고 기형과 발생이 증가하는 등 품질과 수량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일조량이 부족한 장마철에는 출하량이 감소하며, 이후 더운 날씨가 이어져도 출하량이 줄어든다.

또 주로 하우스 시설에서 재배되는 상추·깻잎·시금치는 비가 오는 경우라도 작업에 어려움은 없지만, 깻잎의 경우 다른 채소보다 일조량에 민감해 비나 구름에 따라 일조량이 감소하면 생육이 지연돼 공급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다. “삼겹살에 깻잎을 써서 먹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때다.

이 외에도 박과 채소 중 저온성 작물로 낮 온도 23~25℃ 수준에서 잘 자라는 애호박의 경우 약한 빛에 견디는 힘은 강한 편이나, 일조가 부족하면 성장과 착과가 억제되고 낙과가 많이 발생하는 등 출하량에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장마 기간에 출하량이 줄어들다가 장마 이후 맑은 날이 지속하면 출하량이 회복되는데, 이때는 가격이 낮기 마련이다.

수확 속 알기가 어렵든 작물의 수확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인 것 같다. 기본에 충실한 수밖에, 품목별로 ‘개화 후 며칠’이라고 배우지 않았는가. /bigkim@kwangju.co.kr

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농가 338호 신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8일 2025년도 저탄소 축산농가 인증 농가 338호를 신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축산 농가들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 농가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23년 71호, 2024년 190호, 2025년 338호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축종별로 한우 42호, 돼지 187호, 젓소 109호의 농가가 신규 선정됐다. 올해 신규 인증 농가는 저탄소 사육관리, 가축분뇨 처리 개선,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평균 한우 농가 13.19%, 돼지 농가 29.86%, 젓소 농가 23.07%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탄소 인증 농가 뿐만 아니라 저탄소 축산물의 소비 기반도 확대되는 추세다. 저탄소 인증 우유 및 돼지고기를 활용한 브랜드 제품이 출시됐고, 아산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학교급식에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대학원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